

웡카

1. 개요[편집]

EVERY GOOD THING IN THIS WORLD STARTED WITH A DREAM

꿈에서 시작된 가장 달콤한 이야기

[로알드 달](#)의 [동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 작품으로, [서브 주인공](#)인 [윌리 웡카](#)의 과거사를 다룬 작품이다.^[6]

[2005년판 영화](#)가 [1971년판 영화](#)의 리메이크였다면, 이 영화는 1971년판의 세계관을 토대로 원작 이전의 오리지널 이야기를 다룬다.

웡카 (2023)

Wonka

영화 웡카 포스터

Wonka main poste...

장르

판타지, 뮤지컬, 코미디, 드라마, 가족, 사회고발

감독

폴 킹

각본

사이먼 파너비

폴 킹

원작

로알드 달 -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1]

제작

데이비드 헤이먼

루크 켈리

알렉산드라 더비셔

출연

티모시 살라메 외

촬영

정정훈[2]

편집

마크 에버슨

음악

닐 해넌(노래)[3]

조비 텔벗(스코어)

미술

네이션 크롤리

의상

린디 헤밍

촬영 기간

2021 년 10 월 ~ 2022 년 3 월 11 일

제작사

헤이데이 필름스

빌리지 로드쇼 픽처스

배급사

미국 국기 워너 브라더스

대한민국 국기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개봉일

독일 국기 2023 년 12 월 7 일

중국 국기 일본 국기 2023 년 12 월 8 일

미국 국기 2023 년 12 월 15 일

대한민국 국기 2024 년 1 월 31 일

화면비

2.39:1

상영 시간

116 분 (1 시간 56 분 5 초)

상영 타입

2D 자막/더빙 | 4DX | MX4D | IMAX | ScreenX | Dolby Cinema

제작비

1 억 2,500 만 달러

월드 박스오피스

\$632,302,312[4]

북미 박스오피스

\$218,402,312

대한민국 총 관객 수

353 만 856 명[5]

스트리밍

coupang play ▶ 자막 ▶ 더빙

상영 등급

대한민국 국기 영등위 전체관람가 2021 전체 관람가

미국 국기 PG 로고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 | 페이스북 아이콘 | 인스타그램 아이콘 | Threads 아이콘 | X Corp 아이콘(블랙) | 틱톡 아이콘 | 유튜브 아이콘

6. 등장인물[편집]

괄호 안 순서는 (담당 배우 / 국내판 성우 / 일본판 성우)다.

6.1. 주인공[편집]

- [월리 웡카](#) ([티모시 살라메](#) / [심규혁](#), 임단우(노래) / [하나무라 소타](#))^[9]
괴짜지만 현실적인 구석이 있는 지금까지의 모습과 달리, 매우 순박하고 때문지 않은 성격이다. 세계 최고의 디저트 성지 '달콤 백화점'에 자신의 초콜릿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7 년 동안 배에서 셰프로 일하다 도시에 상경한다. 그러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12 소버린을 하루 만에 다 써버려 빈털털이가 되고, 스크러빗 부인과 블리처에게 사기 계약을 당해 세탁소에서 착취 당할 위기에 빠지는 것은 물론, 초콜릿 카르텔에게 찍혀 압박을 받는 등 고난의 행군을 찍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작중에서는 초콜릿 공부에만 전념하느라 국어 공부를 안 해 문맹이라는 설정이 추가되었다.

다만 초콜릿 만드는 솜씨는 작중 최고로, 초콜릿 카르텔 3 인방이 웡카 앞에서는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혹평했지만 뒤에서는 잘 만든다며 남몰래 칭찬하거나 시민들은 물론 웡카를 쫓는 경찰들마저 초콜릿 맛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애버커스도 웡카와 누들의 작전에 동참하지 않으려다 초콜릿을 받아먹고 바로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바꿀 정도.

- [누들](#) (케일라 레인 / [안소명](#) / 센토치히로 치치)^[10]

항상 욕심쟁이가 가난쟁이를 이겨, 윌리. 그게 세상의 이치야.

스크러빗 부인의 수양딸인 소녀. 그러나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박한 대우를 받으며 착취당하고 있다. 여관에 묵고 가려는 뽀빠에게 계약서를 잘 읽어 보라고 경고하지만 뽀빠가 문맹이라 헛수고로 돌아간 걸로도 모자라 스크러빗 부인에게 들켜 다락방에 갇히기까지 한다. 힘들게 자라 일찍 철이 들어 현실적이고 까칠한 성격이지만 때문지 않은 뽀빠에게 감화되어 그를 도와주게 된다.

여담으로 작중에서의 모습을 보면 원작의 주인공 찰리 버켓에서 따온 요소가 많으며, 2005년작 윌리 뽀빠와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11] 또한 일부 관객들은 책을 좋아하는 성격인 것과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 등을 근거로 누들이 나중에 자라서 새 이름을 짓고 [로알드 달의 뮤지컬 마틸다](#)에 등장하는 도서관 사서인 펄프스 부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한다.^[12]

6.2. 스크러빗 세탁소 직원들[\[편집\]](#)

- 스크러빗 부인 ([올리비아 콜먼](#) / [전숙경](#) / [마츠모토 리카](#))

이름의 유래는 'Scrub it'(박박 문질러). 여관 겸 세탁소 주인이지만 상당히 속물적인 인간으로, 방문하는 투숙객들에게 사기 계약을 맺게 해 덤탱이를 씌운 뒤,^[13] 세탁소에 가둬놓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수양딸인 누들도 부려 먹거나 심기를 거스르면 다락방에 가두는 등 슬러그워스 못지않게 악인인 인물. 신데렐라 스타일 [승강훈](#)을 꿈꾸는지 동업자인 블리처를 촌놈이라며 무시했으나 그가 독일의 [바이에른 가문](#) 출신 귀족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에 빠지게 된다.^[14] 블리처가 귀족이 아닌 걸 알았어도 이후에 계속 공냥댄 걸 보면 정말 사랑하게 된 모양. 이후 쿠키 영상에서 경찰에게 체포된다.

- 블리처 (톰 데이비스 / [시영준](#) / [이시이 코우지](#))

이름의 유래는 표백업자를 의미하는 'Bleacher'. 스크러빗 부인의 동업자로, 빈털터리가 돼 노숙을 하려던 뽀빠를 여관으로 데려와 사기 계약을 맺게 해 세탁소 직원으로 삼아 착취를 시킨다. 스크러빗 부인에게 항상 촌놈이라고 욕을 먹음에도 별 말 안 하거나 반바지를 입고 유혹하면 넘어올 거라는 뽀빠의 말에 속아 바로 실행하는 것으로 보아 스크러빗

부인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듯 하다.^[15] 이후 쿠키영상에서 스크러빗과 증거인멸하다가 독약의 부작용으로 외형이 변한 후 애피블에게 잡혀간다.

- **애버커스 크런치** (짐 카터 / [송용태](#) / [히라바야시 타케시](#))

원래 직업은 회계사로, 이에 걸맞게 이름의 유래도 [주판](#)(abacus). 스크러빗 세탁소의 리더로^[16] 세탁소에서도 회계사를 맡고 있다. 원래 집은 작중 나오는 도시에서 아주 먼 곳인데, 슬러그워스의 원래 회계사가 아파서 병가를 내자 소환을 당하여 1주일 동안 그 밑에서 일했으나 그의 책상에 놓인 기밀 문서를 본 걸 들켜 해고당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윙카의 계획을 작전이 무모하다는 점과 초콜릿 카르텔에게 맞서는 것의 위험함을 근거로 매우 반대했다가 누들이 건네준 윙카의 초콜릿을 먹고 맛에 반해 태세전환하면서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

- **파이퍼 벤츠** (나타샤 로스웰^[17] / [정유정](#) / [사이토 키미코](#))

스크러빗 세탁소의 군기반장으로, 원래 직업은 배관공이다. 이름의 유래도 배관공(piper). 하수도 구조를 전부 꿰뚫고 있어 윙카가 초콜릿을 팔다 경찰에게 잡히지 않게 도와준다.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에는 배관공 동료들과 재회하게 된다.

- **래리 처클스워스** (리치 펄처 / [송준석](#) / 야마모토 타카히로)

스크러빗 세탁소의 직원. 원래 직업은 코미디언이며, [썰렁개그](#) [종아하는](#) 낙관적인 성격이다. 이름의 유래는 '웃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의 'chucklesworth'. 특기는 성대모사로, 극중에서 주로 보여주는 것은 '물 속에 빠진 사람 흉내'. 이혼한 부인을 다시 만나고 싶어 윙카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이후 윙카의 마지막 작전에서 특기인 성대모사 실력을 살려 벨의 도움으로 신부의 전화를 동물원 대신 받아 윙카 일행을 동물원 직원으로 위장시켜 교회에 잠입할 수 있게 하는 공을 세운다.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에는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 마주친 전처와의 재결합도 성공한다. 전처가 그의 유머를 듣고 크게 웃으며 받아줬다고.

- **로티 벨** (라크히 타크라르 / [이재현](#) / [하야미 사오리](#))

스크러빗 세탁소의 직원. 원래 직업은 전화교환원으로 이름의 유래도 전화벨(bell)이다. 말수가 매우 적어서 동료들은 과묵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직업답게](#) 매우 수다쟁이로, 잡히고 난 뒤엔 할 얘기도 없고 우울해진 탓에 과묵해진 것이다. 윙카의 마지막 작전에서는 교환원의

실력을 발휘해 동물원에 갇힌 신부의 전화를 가로채 래리에게 연결시키고, 이후 도시에 있는 109 명의 모든 D.스미스에게 전화를 돌려 **누들의 어머니를 찾아내는** 멋진 활약을 펼친다.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는 복직했다고 한다.

6.3. 초콜릿 카르텔^[18][\[편집\]](#)

이 영화의 메인 빌런들. 세계 최고의 초콜릿들을 취급하는 디저트의 성지 '달콤 백화점'에서 3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는 대외적인 모습에 불과하며, 사실은 서로 담합해 도시에 유통되는 초콜릿의 순도를 낮추고 이를 이용해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익과 대량으로 비축된 초콜릿을 이용해 도시의 주요 인사(경찰서장, 줄리어스 신부)들과 결탁해 본인들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심지어 경쟁자가 나타나면 온갖 물 밑공작을 가해 쫓아내거나 암살을 시도할 정도로 지독한 면모도 있다.

- **아서 슬러그워스** (패터슨 조지프 / [변영희](#) / [키시 유지](#))
초콜릿 카르텔의 리더. 악수를 할 때, 손을 꼭 쥐며 **우위를 점하려는** 버릇이 있다. 윙카의 초콜릿 메이커 재능을 알아보고 경찰서장에게 뇌물을 주며 윙카를 도시에 쫓아내려고 한다. 가족영화인 작품 특성상 코믹하게 연출되지만 아이들이 도로에서 노는데 그냥 밀어버리지 왜 쓸데없이 기다리냐고 하거나 수도없이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등 사이코패스에 준할 정도로 인성이 매우 좋지 않은 인물.
스크러빗 세탁소 직원들과 함께 활동해온 윙카를 망치기 직전까지 갔지만, 정작 윙카의 그 유명한 초콜릿 공장을 세우는 계기를 제공시킨 장본이기도 하다. 애초에 윙카가 처음으로 장사했던 백화점 가게를 망치지 않고 그냥 뒀다면 공장을 세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제럴드 프로드노즈** (맷 루커스^[19] / [홍진욱](#) / [세키 토모카즈](#))
어떻게 초콜릿 사업을 부흥시킨 건가 싶을 정도로 눈치가 없고 머리가 나쁘다. 피켈그루버가 끝맺지 못한 말을 대신 마무리해주거나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할 법한 단어를 짚막하게 말하곤 한다.
- **펠릭스 피켈그루버** (매슈 베인턴 / [위훈](#) / [타케우치 쉰스케](#))
선민의식이 매우 심해 'poor'(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듣기만 해도 멀미가 나 구역질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하다가 끝맺지 못하는 버릇이 있다.

- **경찰서장** ([키건마이클 키](#) / [이장원](#) / 오사다 쇼헤이)
심각한 초콜릿 중독자로^[20] 이를 이용한 초콜릿 카르텔에게 과거부터 매수되어 새로운 경쟁자들의 '사고'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도시로 온 윙카에게도 협박과 방해를 일삼는다.^[21] 마지막에도 슬러그워스의 장부로 밝혀진 초콜릿 카르텔들의 범죄를 본인의 힘으로 덮으려 하나, 그 장부에 본인의 이름이 적힌 걸 애퍼블에게 들키는 바람에 힘을 잃고 즉시 검거당한다.
- **줄리어스 신부** ([로완 앳킨슨](#)^[22] / [유해무](#) / 마츠오 쉰)
베네딕트 성당의 신부. 경찰서장과 마찬가지로 초콜릿 중독자이며 수도사 500 명과 함께 초콜릿 카르텔의 비밀 금고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후반부에 비밀 장부 탈취 작전의 일환으로 수도원에 쳐들어온 아비게일에 의해 한바탕 혼썰이 나게 된다. 그 와중에도 자기가 초콜릿에 영혼을 팔아먹은 죄인이라고 신에게 고백하는 걸 보면 최소한 자신이 나쁜 짓을 한다는 자각은 있다. 윙카와 누들을 구출하러 온 움파룸파에게 빈 병으로 [머리통을 정통으로 가격당해](#) 기절한 장면을 끝으로 더 이상의등장이 없어 이후 행적은 불명이나, 초콜릿 카르텔의 삼사장 및 그들과 결탁한 인물들(경찰서장, 스크러빗 부인, 블리처 등)이 검거될 때 함께 검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6.4. 기타[\[편집\]](#)

- **움파룸파** ([휴 그랜트](#) / [이정열](#) / [마츠다이라 켄](#))
윙카의 뒤를 쫓으면서 초콜릿을 만드는 족족 훔쳐 가는 주황색 소인. 외형은 1971 년판을 따랐다. 노래를 부를 때 빼면 일절 말을 하지 않는 원작과 달리 평범하게 말을 잘 하며, 순진무구하게 말 잘 듣는 원작과 비교하면 은근히 까칠하고 교활한 성격이다. 원래 룸파랜드에서 카카오 열매를 지키는 병사였으나,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카카오 열매를 수확하던 윙카가 전부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23] 죄를 책임지고 쫓겨나게 된다. 그 뒤로 윙카에게 카카오 열매를 훔쳐간 빛이라는 명목으로 초콜릿을 훔쳤던 것. 친구들 중에서는 키가 제일 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평균보다 6mm^[24] 작아 '반바지'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러나 윙카가 추방당하던 도중 정도껏 맞서라며 격려를 하거나 마지막에 윙카를 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후에 윙카가 시식 부서가 필요하다며 동업을 제안하자 무지갯빛 초콜릿을 먹고 뽕가 동업 제안을 받아들인다.^[25]

- **애퍼블 경관** (코브나 홀드브룩스미스 / [서문석](#) / [모리쿠보 쇼타로](#))

준법정신 투철한 경관. 초반부에 달콤 백화점에서 본인의 초콜릿 가게를 여는 상상을 하던 웅카에게 백화점의 망상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벌금 3 소버린을 걷어가고, 이후 달콤 백화점에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던 웅카에게 슬러그워스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웅카의 수입을 전부 몰수한다. 하지만 방값이라도 내게 1 소버린이라도 달라는 웅카의 말에 안타까운 표정으로 동전을 건네거나^[26] 'You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 시퀀스에서 활짝 웃으며 피날레를 장식하는 등 경찰서장과는 다르게 깐깐해도 정직한 인물이라는 점이 계속해서 부각되며, 마지막엔 누들에게 슬러그워스의 장부를 건네받고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경찰서장을 잡고 새롭게 경찰서장이 되었으며 이후 쿠키영상에서 웅카의 초콜릿에 독을 탄 스크러빗 부인, 블리처를 체포하는 활약을 펼친다.
- **바질** (사이먼 파너비^[27] / [백승철](#) / [이와사키 히로시](#))

동물원 경비원. 누들이 동물원에서 보낸 선물이라며 준 '화려한 밤 산책' 초콜릿을 먹고 감수성이 솟구쳐 첫사랑에게 전화했다가 잠들고, 웅카와 누들이 그 틈에 동물원에 잠입해 기린젓을 찐다. 선인인데다가 초콜릿의 효과에 당해 불쌍하긴 하나 그래도 후반부에도 등장하며 정황상 그웨니와 이어지게 된 듯.
- **그웨니** (엘리 화이트 / [홍수정](#) / [신타니 마유미](#))

초콜릿 카르텔의 지하금고를 지키느라 몇 년 동안 햇빛도 못 본채 자기 일터에서만 사는 무시무시한 경비라고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보통 사람과 다를 거 없는 감수성을 지닌 인물. 알고 보니 바질의 첫 사랑이 이 사람이고, 그웨니 역시 사실은 같은 마음이어서 '화려한 밤 산책' 초콜릿을 먹고는 바질에게 전화한다.^[28] 결국 바질과 이어진다.
- **도로시 스미스** (트레이시 이파처)

누들의 어머니로, 직업은 도서관 사서. 누들의 친부가 죽자 누들을 숙부에게 맡겼지만 버림받은 누들이 죽은 줄 알고 오열했다.^[29] 이후 누들과 재회한다.
- **웅카의 어머니** ([샬리 호킨스](#) / [배정미](#) / [혼다 타카코](#))

웅카의 생일마다 초콜릿을 만들어줬으며, 자신이 만든 마지막 초콜릿 하나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작중 웅카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인물.

- **아비게일**

동물원에 살고 있는 기린으로, 아카시아 민트라면 사족을 못 써서 아카시아 민트 초콜릿을 준 웅카와 친밀감을 얻는다. 마카롱을 만들기 위한 기린 우유를 제공해 주고 초콜릿 탈취 작전에서는 베네딕트 성당에 쳐들어와^[30] 웅카가 잠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작에 등장한 황금알 낳는 거위나 호두까기 다람쥐와 비슷한 포지션으로 추정되는 동물 캐릭터. 기린 우유 중 일부는 기린 우유 마카롱의 재료가 된다.

7. 줄거리

1. 도시로 온 윌리 웅카[편집]

OST: Pure Imagination (Opening Titles Version), A Hatful of Dreams (모자 가득한 꿈)

7년 동안의 긴 항해 끝에 윌리 웅카는 어느 도시에 도착한다. 그의 꿈은 이곳에서 가게를 열어 초콜릿을 팔아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그러나 12개의 소버린 은화[1]를 들고 항구에서 내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은화를 9개나 소비하는 바람에[2] 밤에는 세 개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두 개는 노숙자에게 기부하고 하나는 위로 튕겨 날렸다가 실수로 놓쳐 하수구에 빠뜨리고 만다.[3]

결국 도시에 도착한 지 하루도 안 되어 빈털터리가 된 웅카는 어쩔 수 없이 벤치에서 노숙을 시도한다. 모자에서 찻주전자, 숟가락, 컵을 꺼내 핫초코를 타서 마시려는데, 강아지 '티들스'를 산책시키던 남자 블리처가 나타난다. 블리처는 웅카에게 추운데 여기서 잘 거냐며 묻고, 웅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다. 웅카는 어느새 컵 모양으로 얼어붙은 핫초코를 막대 아이스크림처럼 씹어먹으며 블리처를 따라간다.

2. 스크러빗 여인숙[편집]

OST: Welcome to Scrubbit's

Mrs. Scrubitt: If that's you, Bleacher, you'd better have my gin.

스크러빗: 블리처, 거기 당신이라면, 진을 사 왔어야 할 거야.

Bleacher: Oh, I have something better than gin, Mrs. Scrubitt. A guest.

블리처: 아, 진보다 더 좋은 걸 가져왔소. 스크러빗 부인. 손님 말이지.

그렇게 블리처와 스크러빗 부인[4]이 운영하는[5] 여인숙 겸 세탁소로 도착한 웅카. 스크러빗 부인은 웅카를 맞아주며 이곳에서 일하는 소녀 누들을 불러 웅카에게 진을 대접해준다. 웅카는 진을 마시고 난롯가 옆에서 몸도 녹인다.

이후 웅카가 부인에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와 계획을 설명하며 나름의 마술(?)을 보여주자, 부인은 내일 오후 6 시까지 1 소버린만 내면 되는 '사업가 패키지'를 제안하며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한다. 이에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웅카. 그때 누들이 부인의 뒤에서 웅카에게 "작은 글씨를 읽어!"라고 말하고, 웅카는 계약서 밑에 접힌 종이를 쪽 펼쳐보는데 두루마리처럼 길게 늘어나자 잠깐 당황한다. 스크러빗 부인은 누들이 '고아 증후군'이 있고 의심이 아주 많이라며 무시하라고 한다. 그럼에도 웅카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만, 곧 의심을 접고 서명한다.[6] 부인은 계단을 올라가 웅카를 방으로 안내하고,[7] 누들을 불러 웅카에게 고자질을 한 벌로 추운 독방에 감금한다.

3. 첫 초콜릿 장사[편집]

OST: Hoverchocs (두둥실 초코)

다음 날 아침, 웅카는 달콤 백화점으로 가 빈 점포 앞에 서서 손을 놓아도 넘어지지 않는 마법의 지팡이를 두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이때 세탁물 수레를 끌고 백화점 앞을 지나가던 누들도 이를 지켜본다. 사람들이 모이자 웅카는 모자에서 유리병을 꺼내 그 안에 든 '두둥실 초코(Hoverchoc)'를 소개한다. 특이한 초콜릿을 보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자, 맞은편 건물의 위층에 있는 달콤 백화점의 삼사장, 아서 슬러그워스, 제럴드 프로드노즈, 펠릭스 피켈그루버도 이를 보게 된다.

웅카가 병뚜껑을 열자 안의 초콜릿들이 공중에 떠오르며 W 모양을 만든다. 이에 모두가 놀라워하는 사이 슬러그워스가 내려오고, 피켈그루버와 프로드노즈도 와서 초콜릿을 시식해보겠다고 말한다. 웅카는 유명한 초콜릿 장인인 슬러그워스를 보고 기뻐하며 악수를 하고, 악력이 강했는지 아주 센 악수였다고 말한다. 이어서 셋은 두둥실 초콜릿을 하나씩 입 안에 넣는데, 두둥실 초콜릿에 마시멜로와 짹짹한 솔티드 캐러멜, 체리가 들어있음을 알아낸다.[8]

Slugworth: Well, Mr. Wonka. I've been in this business a very long time, and I can safely say that of all chocolate I have ever tasted, this is without doubt the absolute 100% worst.

(슬러그워스: 음, 웅카 씨. 이 업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 담아 온 사람으로서 장담하건대, 지금까지 먹어 본 초콜릿 가운데, 이건 단연코, 완전 최악이오.)

Wonka: Whoo! There we have it, ladies and gentlemen. An endorsement from Mr... Wait. The worst?

(웡카: 이얏호! 들으셨죠, 신사 숙녀 여러분! 슬러그워스 씨의 인정... 잠깐. 최악이요?)

Slugworth: We three are the fiercest of rivals, and yet we agree on one thing. A good chocolate should be simple.

(슬러그워스: 우리 셋은 가장 격렬한 경쟁자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은 같은 생각이요. 좋은 초콜릿은 단순해야 한다고!)[9]

이렇게 모두 좋아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정작 슬러그워스는 악평을 남긴다. 당연히 칭찬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들떠 있다가 갑자기 놀라서 묻는 웡카에게 삼사장은 너무 여러 가지 맛이 나서 이상하다고 우기지만... 웡카가 큰일났다는 표정으로 "이제 더 싫어지시겠네..."라고 말한 직후 갑자기 셋의 몸이 공중으로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에 당황하는 슬러그워스는 "웡카, 미쳤군! 대체 누가 날게 해주는 초콜릿을 원하겠어?"라며 따지지만, 웡카는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묻고 사람들이 일제히 초콜릿을 사며 첫날부터 대박을 친다.

OST: Flying Chocolatiers

그러나 멀리서 지켜보던 누들이 흥미로운 표정을 보인 사이 백화점에 경찰들이 오며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전날 웡카에게서 벌금을 뜯어간 애플 경관이 이번엔 경찰서장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또 불만 신고가 접수됐다고 수입을 모두 압류하고 그를 쫓아낸다. 결국 웡카는 방값을 내기 위한 1 소버린만 겨우 받고[10] 또 빈털터리가 된다.

그렇게 웡카는 1 소버린을 가지고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간다. 웡카는 첫날 장사가 어땠냐고 묻는 스크러빗 부인에게 다행히 1 소버린은 벌었다며 숙박료를 정산하겠다고 하지만, 부인은 추가 요금이 발생했다고 장부를 펼친다. 둘은 술값, 난로 사용료,[11] 계단 사용료, 미니 비누 바[12] 사용료, 매트리스, 침대보, 베개 사용료 등 온갖 구실을 붙여가며 웡카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결국 1 소버린이 1 만 소버린까지 불어나 웡카는 세탁소에서 강제로 일하며 그 돈을 다 갚아야 할 빚쟁이 신세가 된다. 하루에 1 소버린이면 다 갚는데 27년 4개월 16일이나 걸린다는 부인과 불리처의 말은 덤. 결국 웡카는 세탁물 투입구에 던져져 여인숙의 반지하 세탁소에 들어가게 된다.

웡카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사기를 당해 이곳에 들어온 일꾼 네 명을 만나게 된다. 전직 회계사이자 세탁소의 작업반장 애버커스 크런치, 배관공 파이퍼 벤츠, 이혼한 코미디언 래리 처클스워스, 과묵한 전화 교환수 로티 벨. 출구를 찾아보려는 웡카에게 파이퍼는 우리가 탈출 시도를 안 해봤겠냐며 이곳은 전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곳이라고 대답하고, 크런치가 웡카를 비눗물 작업장으로 안내하며 빨래를 시작한다.

OST: Scrub Scrub (박박 문질러)

4. 초콜릿 제조기[편집]

OST: Wonka's Case (웁카의 가방)

그날 밤, 일이 끝나고 웁카는 무너진 침대[13]와 찬물과 더 찬물만 나오는 수도꼭지, 불이 잘 안 들어오는 전등이 있는 직원용 숙소로 돌아온다. 룸서비스(?)를 위해 들어온 누들이 작은 글씨를 읽지 그랬냐고 말하자, 웁카는 "난 평생 동안 초콜릿 연구에만 매달렸어. 다른 건 다 타인의 친절에 의존해야만 했지."라고 잠시 한탄하다가 가방을 펼쳐 자신의 초콜릿 제조기를 꺼내고, 지금 상황에 딱 어울린다고 '구름 뒤 한 줄기 희망' 초콜릿[14]을 만들기 시작한다. 자신은 초콜릿을 먹어본 적 없다는 누들의 말에, 웁카는 가방 한켠에 달린 영사기를 돌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웁카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강을 돌아다니는 배에서 살았고, 요리사였던 어머니는 가난해서 웁카의 생일날에만 초콜릿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 웁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그 초콜릿들의 기억을 평생 동안 고이 간직했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꿈에서 시작되었단다."라는 유언과 초콜릿 하나만을 남긴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웁카는 세계 최고의 디저트 성지인 달콤 백화점에서 성공을 거둬 어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 도시까지 온 것.

초콜릿이 완성되자 누들은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어보고는 맛있지만 앞으로 더 먹지 못해 힘들 것 같다고 애둘러 칭찬한다. 이에 웁카는 백화점에서 초콜릿을 팔아 번 돈으로 빚을 갚으면 평생 초콜릿을 먹을 수 있다며, 세탁물 수레에 자신을 싣고 나가주기만 하면 된다고 부탁한다. 하지만 누들은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고민하는데, 갑자기 두 번 "아!"를 외친다. 웁카는 이에 "두 번이면 뭔가 있는 거지! 좋은 생각 떠오른 거 있어?"라고 묻고, 누들이 스크러빗 부인이 귀족을 좋아해서 귀족을 만나면 정신이 팔릴 것이라고 하자 같이 초콜릿을 먹은 웁카도 두 번 "아!"라고 외치더니 종이와 연필이 있냐고 묻는다.

5. 초콜릿 카르텔[편집]

OST: Sweet Tooth

한편 경찰서장은 성당을 방문해 고해성사를 한다. 줄리어스 신부는 초콜릿을 150 개 먹었다는 서장의 고해를 듣고, 초콜릿을 하나 건네받은 뒤 "유혹을 떨치는 건 힘든 일이죠."라고 말하며 암구호를 확인한다. 줄리어스가 십자가 레버를 당기자 비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서장은 초콜릿 카르텔의 지하 본부에 도착한다.

서장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삼사장에게 또 다른 경쟁자를 한 명 퇴거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삼사장은 퇴거시키는 걸로는 부족하며 경찰서장에게 아예 웁카를 도시에서 내쫓아 달라고 청탁한다. 웁카의 초콜릿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정도로 맛있고, 그것도 1 소버린밖에 하지 않아서

가난한[15] 사람들도 많이 사먹을 수 있어서 초콜릿 카르텔의 독점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프로드노즈는 그것도 모자라 웅카에게 초콜릿 장사를 멈추고 떠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라고 서장에게 지시한다. 그러나 서장은 삼사장의 로비에 놀아나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살을 빼겠다는 아내와의 약속 때문에 거절한다.

이에 초콜릿을 더 많이 주겠다는 삼사장의 유혹이 계속되며, 서장이 계속 넘어오지 않자 화려한 부채춤까지 선보이면서 끈질기게 설득한다. 결국 적극적인 유혹 끝에 서장은 초콜릿 1800 상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피켈그루버가 신축성 좋은 양복을 만드는 양복점 명함까지 하나 찢어넣어준다.

6. 세탁소 탈출 작전[편집]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고 블리처가 일꾼들의 점호를 한 뒤 세탁소로 들어가려던 웅카는 번기가 막혔다는 스크러빗 부인의 말을 들은 블리처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사랑의 소리네."라고 귀띔한다. 블리처가 이에 호기심을 가져 질문하자, 웅카는 "웃차림 조금만 손보고 목욕하면 부인이 훌쩍 반할지도 몰라요."라고 진지하게 거짓말을 한다. 웅카가 세운 탈출 계획의 첫 단계는 스크러빗 부인과 블리처가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 세탁소에서 한눈팔게 하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스크러빗 부인이 블리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 일을 하던 누들은 종이에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고, 스크러빗 부인이 뭐냐면서 뺏어 보자 블리처의 삽화와 함께[16] 그가 바이에른 귀족인 '폰 블리치 남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누들은 "모노콜 교수님 아시죠? 저희 세탁소 단골손님 말이에요. 어제 빨래 배달하러 갔더니 바이에른 귀족에 관한 책을 쓰고 계셨는데, 교수님이 그린 그림 중 하나가 왠지 익숙해서... 블리처 아저씨 아니에요?"라며 귀띔한다. 안 그래도 귀족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스크러빗 부인은 누들의 말에 홀랑 넘어갔고, 이후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머리를 단정히 빗고 바이에른 전통 의상인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온 블리처가 사다리를 획 당겨서 공주님 안기를 시전해 작업을 걸자 그와 사랑에 푹 빠지게 된다.

한편 웅카는 세탁소 자재들을 이용해 자동 세탁기[17]를 만들어 세탁소에 없을 때도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누들이 고는 세탁물 수레 안에 몸을 숨겨 탈출에 성공한다. 하지만 주황색 난쟁이에게 초콜릿을 도둑맞았고,[18] 웅카는 초콜릿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누들이 근처 집에 있던 우유병을 훔치려 하자 2 가지 이유를 대며 막는다. 훔치는 건 안 되고, 자기 초콜릿은 평범한 우유로는 안 된다는 것.[19] 웅카는 기린 젖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누들이 동물원에 기린이 있다고 말해주자 둘은 동물원에 잠입하기로 한다.

7. 동물원에서[편집]

OST: Willy and Noodle at the Zoo

저녁이 되자 웅카와 누들은 동물원으로 향하고, 누들은 폐장 시간에 맞춰 마지막으로 동물원을 나서다가 경비원 바질에게 웅카가 준 '화려한 밤 산책' 초콜릿[20]을 건넨다. 바질이 초콜릿을 먹고 잠들자 둘은 동물원에 잠입한다.

둘은 플라밍고 호수를 지나 실내 사육장 안에 들어가 기린을 찾는다. 문맹인 웅카가 호랑이 우리를 기린으로 착각해서 들어가려다가 공격당할 뻔하는 건 덤. 다행히 누들의 도움으로 기린 우리를 찾고, 웅카는 누들과 안에 들어가 기린 아비게일에게 아카시아 민트 초콜릿을 먹여준다. 그리고 누들이 사다리 위에서 아비게일의 턱을 쓰다듬어주는 동안[21] 웅카는 밑에서 젖을 짖는다.

그동안 웅카는 누들에게 그녀의 이름에 관해 물어본다. 누들은 자신의 목걸이에 달린 'N'이 새겨진 반지를 웅카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어머니가 이것만 남겨둔 채 떠났다고 말하면서 "책이 가득한 집에서 엄마와 다시 만나는 게 내 꿈이야."라고 말한다. 이에 웅카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널 세탁소에서 영영 썩게 두지 않을게."라고 엄숙히 말하며 새끼손가락 맹세를 건다[22].

For a Moment (잠시나마)

아비게일의 젖을 다 짖 둘은 동물원 가판대에서 잡은 풍선을 타고 날아서 동물원을 빠져나가[23] 밤하늘을 날아다니며 백화점의 유리 지붕 위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광장에 도착한 직후, 잠복해 있던 경찰서장이 나타난다.

웅카는 일단 누들을 피신시킨 뒤 다가오는 서장에게 말을 걸지만, 서장은 웅카를 분수대에 처박아 물고문하며 더 이상 초콜릿을 팔지 말라고 경고한다. 물속에 처박히는 바람에 웅카가 잘 안 들린다고 항의하자 서장은 "날 놀리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다시 물고문을 하는데, 이에 웅카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안 들린다고 하니까 진짜로 안 들려서 그랬던 것에 당황한다. 서장은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건지 "미안하다. 하지만 다음 번에 또 여기 와서 초콜릿을 팔면 그땐 머리 쪽으로 안 끝날 거다. 알겠냐?"라고 말한다. 이때 웅카가 흑이 없다고 하자 바로 곤봉으로 내리치는 게 개그 포인트.

8. 비밀 초콜릿 장사[편집]

OST: The Letter 'A'

물고문을 당하고 돌아온 웅카를 맞아주는 세탁소 직원들. 래리는 웅카가 만들어놓고 간 자동 세탁기 덕분에 생산량이 30% 증가했다며 고마워하지만, 크런치는 웅카가 물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삼사장의 실체와 자신의 과거를 알려준다.

원래 크런치는 슬러그워스의 전속 회계사가 병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임시로 고용되었지만, 회계 장부의 결재를 받기 위해 슬러그워스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비밀 회계장부[24]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직후 슬러그워스가 찾아와 재빨리 몸을 숨겼으나, 하필 안경을 비밀 장부 위에 올려놓았던 탓에 꼬리를 잡혀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었다. 이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윙카는 세탁소 직원들과 함께 그냥 길거리에서 초콜릿을 팔다 경찰이 들이닥치면 조력자들이 호루라기 소리를 내든 벨을 울리든 신호를 주고, 윙카는 이를 듣고 순식간에 하수구로 도망치는 식으로 초콜릿 장사를 시작한다.[25]

OST: Clock Tower (시계탑), You've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 (이런 초콜릿은 처음이야)

So the taxis never stop

택시 그냥 지나가

The girls think you're a flop

여자는 당신 찝조

You're wet and cold, you're getting old

흠뻑 젖어서 춥고, 늙어가고

Your confidence is shot!

자신감 바닥!

(It's true)

(맞아요)

When people look at you

남들이 볼 때도

They seem to look straight through

투명인간 취급

Or like you're something brown

아니면 신발 밑에 붙은

They found upon the bottom of their shoe

껌이라고 생각해

(Have you been following me?)

(나 미행했어요??)

But this should lift the gloom

그 상처 날려줄

My giraffe milk macaroon

내 기린 우유 마카롱

Just take a chance and you'll be dancing

먹기만 해도 신나는 춤

To a different tune!

절로 나오죠!

Goodbye to feeling small

우울한 기분과

And frightened of it all

슬픔은 이제 안녕

Just eat a few of these

몇 개만 들면 자신감에

And you'll be feeling ten feet tall!

우뚝 서게 돼!

Well, there's chocolate

온갖 초콜릿

And there's chocolate

많고 많지만

Only Wonka's makes your confidence sky-rocke-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맛은 웡카뿐!

Put your hand into your pocket

주머니 속 동전 꺼내서

Get yourself some Wonka chocolate!

빨리 사요 웡카 초콜릿!

(Madam, just one kiss?)

(키스 해도 돼?)

(Yes, please!)

(그럼 당연하지!)

You've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

이런 초콜릿 처음이걸?

No, we've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

그래, 이런 초콜릿 처음이야!

Have you tried his new one?

새로 나온 웡카 초콜릿 먹어보셨나요?

No!

아직요!

Oh, you've got to have a go!

그럼, 그건 꼭 먹어봐야 돼요!

Just pop one in and everything

하나를 펄펄 씹어주면

Becomes A Broadway Show!

여긴 브로드웨이 쇼나 마찬가지예요!

The news that makes you gasp

당신을 놀라게 하는 뉴스

The jokes that make you laugh

당신을 웃기게 하는 농담

All that you say and do all day will be choreographed!

당신의 말과 행동이 춤으로 변하게 하는 날들!

Lost your hair, can't think where?

어느 머리가 빠지셨나요?

Feeling fairly bare up there

여기 정수리가 빠진 느낌이에요

Don't despair, I come prepared

걱정 마세요, 만날 준비 하세요

Behold my hair repair éclair!

이 자라나라 에클레어를요!

It's made from ground vanilla

자연산 바닐라로 만들었죠

From the markets of Manila

마닐라 마켓에서 구해왔죠

Take heed eat more than three and you'll end up like a gorilla!

세 번 더 먹으면 고릴라처럼 변하겠죠! [26]

Well, there's chocolate

여기도 초콜릿

And there's chocolate

저기도 초콜릿

Only Wonka's makes you rock around the clock-elet!

오직 왕카만이 하루종일 여기서 춤추게 만들릿!

Put your hand into your pocke-let! Get yourself—

주머니를 뒤져보시고 왕카 초콜릿—

(경찰서장)

(Oh, put a sock in it!)

(아, 양말때기나 먹으세요!)

Make sure they're all frisked!

한 곳도 빠짐없이 수색해!

Have you ever had chocolate like this?

이런 초콜릿 먹어본 적 있나?

(애퍼블 순경)

I've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

이런 초콜릿은 먹어본 적 없어!

Get yourself some wonka chocolate!

왕카 초콜릿 드시러 가보세요

Put your hand into your pocke-let!

주머니도 뒤져보시고요

Get yourself some wonka chocolate!

왕카 초콜릿 드시러 가보세요

Put your hand into your pocke-let!

주머니도 뒤져보시고요

Get yourself some Choc!

드시러 가보세요!

(누들)

Well, there's literate

글을 읽는 사람도 있고

And illiterate

못 읽는 사람도 있지

Can you tell me what this word is?

이 단어가 뭔지 알아?

(웁카)

Not a bit of it!

아니, 모르겠어!

(누들)

Well, that's a vowel

자, 이건 자음이고

And that's a consonant

이건 모음이죠

(웁카)

What's that now?

뭘 모야?

You're talking nonse-nence!

그냥 간단히 설명해줘!

(누들)

I should call it quits!

수업은 이 정도로 끝낼게요!

(크런치)

But you've never sold chocolate like this!

하지만 이렇게 잘 팔리는 초콜릿은 본 적 없어요!

(피켈그루버)

Well, there's chocolate

여기도 웡카 초콜릿

(경찰서장)

(I understand that)

(이해합니다)

And there's chocolate

저기도 웡카 초콜릿

(경찰서장)

(Totally true)

(사실이기도 하죠)

(슬러그워스)

Only Wonka drives a hole right through our profit-lets!

이런 초콜릿은 우리 사업에 흠집을 낸단 말입닐릿!

(경찰서장)

(But what i'm trying to tell you is that...)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If we don't get on top of this

이 독주체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We'll go bust, Choc-apocalypse!

우린 쫄딱 망해요, 초콜릿-칼립스 때문에!

We'll cease to exist!

우린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경찰서장)

But fellas, you've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

하지만 여러분... 이런 초콜릿은 먹어본 적 없을 거란 거 알잖아요!

No! We've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

네! 이런 초콜릿은 먹어본 적 없어요!

Well, there's chocolate (Well, there's chocolate)

여기도 초콜릿 (여기도 초콜릿)

And there's chocolate (And there's chocolate)

저기도 초콜릿 (저기도 초콜릿)

Only mine will find you buying wedding frock-lets!

이건 결혼식을 진행할 때도 손에서 못 놓을 보물릿!

We have just tied the knot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And it's all because of Wonka's chocolate!

왕카 초콜릿 덕분이에요!

Off to a life of bliss!

저 멀리 행복을 찾아서!

You've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

이런 초콜릿은 먹어본 적 없을 거예요!

No, we've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

네, 이런 초콜릿은 먹어본 적 없어요!

Have you ever had chocolate like this?

이런 초콜릿을 가져본 적 있나요?

No, we've never had chocolate, no!

아니요, 이런 초콜릿은 가져본 적 없어요, 전혀요!

We've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

이런 초콜릿은 먹어본 적 없어요!

먹으면 자신감이 복돋는 기린 우유 마카롱을 시작으로[27] 웅카의 초콜릿은 엄청나게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고 먹는 순간 브로드웨이 쇼에 들어온 것처럼 흥겨워지는 초콜릿, 자라나라 에클레어 등 이들을 추격하는 경찰들은 물론[28] 웅카의 비밀 장사 때문에 판매량이 바닥을 치던 초콜릿 카르텔마저 한 입 먹자마자 반해 버리는 특별한 초콜릿들을 팔며 웅카의 초콜릿 장사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그러나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 경찰서장에게 하수도로 사라지는 것을 들키게 되고,[29] 경찰서장은 부하들에게 도시의 모든 하수구를 감시할 것을 명령한다.[30]

9. 움파룸파와의 재회[편집]

그날 밤 웅카가 자는 사이 창문을 타고 주황색 난쟁이가 초콜릿 병을 훔치러 온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고, 난쟁이는 바닥의 스프링을 밟고 레코드 속에 빠져 병에 갇힌다. 난쟁이의 정체는 움파룸파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웅카에게 원한을 갖고 초콜릿을 훔치고 있었다. 웅카가 기억하지 못하자 그는 피리를 분 뒤[31] 춤을 추며 사연을 들려준다.

OST: Oompa Loompa (움파룸파)

Oompa Loompa doompety-doo

움파룸파 둠파디두

I've got a tragic tale for you

슬픈 이야기를 들려줄게

Oompa Loompa doompety-dee

움파룸파 둠파디디

If you are wise, you'll listen to me

현명하다면 귀 기울여 줘

Dear Loompaland is both luscious and green

내 고향 룸파랜드는 비옥하고 푸른 곳

But not conducive to growing the bean

하지만 카카오를 키우기엔 좋은 곳이 아니지

My job was guarding what little we'd got

귀한 열매 지키는 게 내 임무였는데

You came along and pinched, the, lot!

네가 찾아와서 전부 다 가져갔지!

(Hey, why didn't you say something?)

(잠깐, 그럼 말하지 그랬어?)

(Well, perhaps I drifted off.)

(글쎄, 내가 잠들었나 보지.)

Oompa Loompa doompety-day

움파룸파 둠파디데이

When I awoke, they sent me away

난 눈 뜨자마자 쫓겨났어

I'm disgraced, cast out in the cold

난 망신당하고 돌아갈 수도 없게 됐지

Til I've paid my friends back a thousand fold!

내 친구들에게 천 배로 갚기 전까지!

(A thousand fold?! You gotta be kidding me!)

(천 배라고?! 장난이지?!)

I repeat, a thousand fold!

다시 말해주지, 천 배로!

움파룸파는 고향인 룸파랜드에서 적게나마 자라는 카카오 열매 4 개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왕카가 모조리 따가서 그 별로 천 배를 갚을 때까지 쫓겨났다고 한다. 이에 왕카는 사과하지만 움파룸파는 신사답게 협상하자며 병에서 놀아주고 프라이팬을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더니... 그를 때리고 "움파룸파는 협상 따윈 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초콜릿 병을 훔쳐 도망친다.

10. 추방당한 왕카[편집]

OST: A World of Your Own (당신만의 세상)[32]

왕카는 초콜릿 장사로 번 돈으로 달콤 백화점의 가게를 일주일 동안 빌려 장사를 준비한다. 마침내 공개된 왕카의 가게 안은 초콜릿들로 만들어져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고, 곧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다.[33]

그러나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란 수염이 자라고 얼굴이 험크나 슈렉처럼 녹색으로 변하자, 이상을 감지한 왕카는 남초롱꽃 모양 초콜릿을 한 입 먹더니 자신이 넣지도 않았던 독한 발모제인 '설인의 땀'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된다. 이에 왕카는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는 걸 막기 위해 독이 들어갔다고 소리치지만, 오히려 독이라는 발언이 방아쇠가 되어 분노한 손님들에 의해 가게가 완전히 박살나고 만다. 그리고 건너편에서는 백화점 삼사장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이를 바라보고 있었다.[34]

OST: Sorry, Noodle (미안해, 누들)

그날 밤, 망한 가게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해하던 왕카에게 혼자 있을 시간을 주자는 의미로 동료들이 자리를 비우자 삼사장이 찾아온다. 왕카는 당신들이 꾸민 짓이냐고 추궁하고, 슬러그워스는 첫 정식 장사가 망해 유감이라며 발뻠함과 동시에 "네가 이 도시를 떠나고, 두 번 다시 초콜릿을 만들지 않는다면 네 친구들을 세탁소에서 풀어줄게."라고 제안한다. 결국 왕카는 동료들을 위해 이들의 조건을 수락하고[35] 삼사장이 예약한 북극항 배를 타고 떠난다.[36]

절망하고 있는 왕카 앞에 나타난 움파룸파. 그는 왕카를 약올리듯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안 탄다며 조롱하더니 가방을 침대로 변형시켜 안대를 끼고 편하게 눕는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던 중 왕카는 누들의 목걸이에 걸린 반지와 슬러그워스의 반지가 같은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초콜릿 카르텔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해 다시 배를 돌리려고 조타실로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선장 대신 다이너마이트가 있었다. 애초에 초콜릿 카르텔은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했던 왕카를 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바다로 뛰어들어[37] 겨우 폭탄을 피한 왕카는 무려 6km를 수영해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38] 그리고 배가 폭발되는 모습을 멀리서 구경하던 서장은 카르텔로부터 초콜릿을 받는데, 워낙 크고 아름다운 양이라 서장의 차를 반쯤 찌그러뜨린다(...).

11. 초콜릿 탈취 작전[편집]

다음 날 아침, 스크러빗 부인은 세탁소 직원들을 불러모아 초콜릿 카르텔에게 받은 돈다발을 보여주며 직원들을 해방시켜 준다.[39]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얻었지만 누들만은 슬러그워스가 특별히 부탁했다며 영원히 세탁소에서 일해야 한다고 풀어주지 않으려 한다. 이에 누들은 자신들이 한 짓과 불리처가 귀족이 아니라는 진실을 말하나 되려 열받은 스크러빗 부인에 의해 다시 갇히지만 곧 왕카와 세탁소 동료들이 찾아오고, 왕카는 누들을 구출한 후 동료들을 모두 모아 비밀 금고의 장부를 훔치려는 계획을 세운다.

OST: 500 Monks, 1 Giraffe (수도사 500 명과 기린 한 마리)

바질에게 '화려한 밤 산책' 초콜릿을 먹여 한 번 더 잠재우고, 기린 아비게일을 성당으로 데려와 줄리어스 신부를 내쫓은 뒤[40] 금고로 잠입한 왕카와 누들은 한 번 더 화려한 밤 외출 초콜릿으로 초콜릿 카르텔 지하 본부 경비원을 잠들게 한 후[41] 바로 금고로 진입해 장부를 발견하지만[42] 기다리고 있었던 삼사장에 의해 발각된다. 이때 왕카와 슬러그워스의 대화로 진상이 드러나는데, 사실 누들은 슬러그워스의 조카였다. 슬러그워스는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남동생이자 누들의 아버지를 죽였으며,[43] 누들의 어머니는 슬러그워스에게 갓 태어난 누들을 맡겼으나 오히려 세탁소에 버려진 것이었다. 그리고 스크러빗 부인이 목걸이 반지의 이니셜인 Z[44]를 N으로 읽어 지금의 누들(Noodle)이 된 것.

OST: Death by Chocolate (초콜릿에 빠져 죽다), Oompa Loompa to the Rescue (옴파룸파의 구출 작전)

결국 왕카와 누들은 삼사장의 초콜릿 원액 탱크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한다. 왕카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옴파룸파에게 갇힌 초콜릿 한 병을 전해달라고 하지만, 문이 닫힌 후 삼사장은 그 초콜릿을 다 먹어버린다.[45] 그렇게 둘은 초콜릿에 가라앉아 익사할 위기에 처한 줄 알았으나...

You have made a very grave error, gentlemen. Steal from an Oompa Loompa, we take back, a thousand fold.[46]

너희들은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거야. 옴파룸파에게서 물건을 훔치면, 우린 천 배로 돌려받거든!

움파룸파

움파룸파가 자기한테 줘야 할 초콜릿을 훔쳐먹은 삼사장에 대한 복수로 다 먹고 버린 초콜릿 병을 던져서 줄리어스 신부의 머리를 맞혀 기절시킨 뒤 지하로 내려와 탱크에 차오르던 초콜릿을 배수구를 열어 방출해 둘은 간신히 목숨을 구한다.[47] 그리고 눈엣가시였던 뽀빠리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확신에 마침 경찰차를 타고 찾아온 경찰서장[48]과 친목질하며 유유히 현장을 뜨려는 삼사장의 뒤로 나온 그들은 장부를 애플에게 건넨다.[49]

OST: Noodle gives Affable the Ledger, Chocolate Fountain (초콜릿 분수대)

한편 카르텔 삼사장은 비밀 장부가 애플에게 넘겨지고 자신들이 매수한 경찰서장도 체포되는 것을 보며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깨닫고 삼십육계 출항령을 치려다 자기들이 먹어치운 초콜릿의 효과로 몸이 뒹 뜨기 시작했고, 하늘로 날아가지 않기 위해 겨우겨우 얼어붙은 광장 분수대를 붙잡는다.[50] 그 와중에도 슬러그워스는 변호사 고용하고 판사랑 배심원단도 싹 다 매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빼기다가, 자금원인 대량의 초콜릿 원액이 뽀빠리의 세탁소 동료들에 의해 얼어붙은 분수대의 얼음을 깨뜨리고 뿔뿔이 손이 놓치고 그대로 멀리 날아가 버린다.[51]

12. 새로운 시작[편집]

OST: Mamma's Secret (엄마의 비밀)

모두가 초콜릿 원액을 즐기고 있을 때 뽀빠리는 어머니의 유품인 초콜릿을 꺼내고, 그 속에 있는 어머니의 메시지인 "비밀은 이거야. 중요한 건 초콜릿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란다." (It's not the chocolate that matters, it's the people you share it with.) [52]를 읽고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어머니의 환영과 손키스를 주고받으며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뽀빠리는 동료들과 어머니의 초콜릿을 나눠먹고 [53], 누들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며 뽀빠리와 이별한다. [54] 누들의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숙식하며 근무하고 있었다. 기린 젓을 짤 당시 누들이 뽀빠리에게 털어놓았던, 책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어머니와 재회하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OST: Pure Imagination (완벽한 상상) [55]

이후 뽀빠리는 움파룸파에게 마지막으로 빚진 초콜릿을 건네준 뒤 시식부서 자리를 권하며 동업을 제안하고, 버려진 성을 매입해 [56] 초콜릿 공장을 세운다. 뽀빠리가 노래를 부르며 성이 아름답게 개조된 공장으로 변하고, [57] 움파룸파는 뽀빠리가 건넨 무지개색 초콜릿을 먹고 악수를 건네면서 계약을 받아들인다. 공장에 올려진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엔딩 타이틀이 나오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13. 쿠키 영상[편집]

OST: Oompa Loompa (Reprise)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움파룸파가 등장해 관객들에게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앉으라며 후일담을 녹화한 영사기를 틀어 준다. 크런치와 벤츠는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벨은 다시 전화 교환원으로 복직했으며 래리는 재기에 성공함과 동시에 전처와도 재결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그의 개그에 크게 웃으며 받아줬다고.

한편 초콜릿 카르텔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고민하던 스크러빗 부인에게 불리처가 황급히 달려와서 경찰들이 찾아왔음을 알리자 둘은 여관의 문을 닫고 시간을 끌면서 왕카의 초콜릿에 넣었던 '설인의 땀' 발모제를 마셔 증거인멸을 시도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자기들이 중독되며 변한 피부색과 무성히 자라난 머리카락은 빼도박도 못할 증거물이 되었고,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체포되어 결국 끌려가기 직전 키스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감옥에서 짖값을 치를 날만 남은 신세가 된다.[58] 이 때 두 사람을 체포하는 일을 지휘한 것이 애퍼블이었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거라는 그의 말은 덤.[59] 초콜릿 카르텔 삼인방의 결말은 나오지 않았으나, 불리처가 스크러빗에게 "초콜릿 카르텔이 끝장났다" 라고 언급하긴 한다.[60]

정리하자면 주연들은 꿈을 이루고 성공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악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걸맞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으로 끝났다.

[1] 소버린은 실제로 있었던 영국 동전이지만 은화가 아니라 금화였으며 금화인 만큼 한 뼘에 10 만 원이 넘는 고액권이었다. 작중에서처럼 아무렇게나 적선을 하거나 낭비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말.

[2] 지도를 1 소버린에 사고, 구두땀이 소년에게 1 소버린을 지불하고, 야채 가게에서 실수로 호박을 떨어뜨려 깨는 바람에 3 소버린을 변상하고 아까 그 구두땀이 소년이 호박이 묻은 구두를 닦아줘서 1 소버린을 더 준다. 소년을 따돌리고 들어온 달콤 백화점에서는 자기 가게를 여는 망상을 하다가 애퍼블 경관에게 백화점의 '망상 금지' 조항을 어긴 것 때문에 3 소버린을 벌금으로 물어줬다.

[3] 일부 팬들은 이 하수구로 빠진 동전이 훗날 찰리 버켓이 하수구에서 주워 황금 초대장이 든 초콜릿을 사게 된 동전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시간대 차이를 생각하면 가능성은 낮지만 정말 그랬다면 굉장히 기묘한 인연이 되었을 것이다. 감독이 이걸 노리고 오마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4] '문질러 닦아'라는 뜻의 'Scrub it'을 변형한 말장난이다.

[5] 부부 사이는 아니다. 왕카가 관계를 물어보자 "부부였다면 더 좋았겠죠?"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6] 이때 뒤에서 지켜보던 블리처가 몽둥이를 들고 다가가다가 웅카가 서명하자 당황하며 재빨리 숨기는 게 개그 포인트.

[7] 이때 나오는 여인숙 광고판에 '한 번 묵고 영원히 못 나가지요!'(Come for a night, stay forever!)라고 적혀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

[8] 웅카 제품답게 출처도 하나같이 비범하기 그지없는데, 마시멜로는 페루의 멜로 마시에서 공수해 온 천연 젤라틴으로 만들었고, 솔티드 캐러멜에는 러시아 광대의 달콤짹짹한 눈물을 섞었으며, 체리는 일본 황실 정원에서 농부들이 엄선한 것을 사용했다고 한다.

[9]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48 년인데, 두둥실 초코는 프랄린 기법으로 만든 초콜릿이며 해당 방식의 제조법은 벨기에의 유서깊은 초콜릿 브랜드 노이하우스에서 1912 년에 개발된 것이다. 즉, 삼사장은 경쟁자를 밀어내겠다는 목적을 달성한 지 30 여 년이 되어가는 제조공법으로 만든 초콜릿을 괜한 트집을 잡아 혹평한 것. 이는 삼사장이 도시의 초콜릿 업계를 휘어잡은 것이 실력 덕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다.

[10] 애퍼블 경관이 웅카에게 방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기 돈을 건네줬다.

[11] 다 웅카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권유했던 것들이다.

[12] 원문은 'Mini bar of soap'(작은 비누 한 장). 호텔의 미니 '바'와 비누를 세는 단위가 둘 다 'Bar'인 것을 의식한 말장난이다. 블리처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나서 미니바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말장난하는 게 포인트.

[13] 대놓고 부서진 것은 아니지만, 진이 빠진 웅카가 몸을 던지듯이 앉자마자 무너진다.

[14] 이름처럼 푸른색 번개 구름 모양이다. 재료는 '농축된 천둥 구름'과 '액체 햇빛'.

[15] 여기서 피켈그루버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을 본 서장이 "가난한 사람들이요?"라고 말하자 피켈그루버가 구역질을 한다. 프로드노즈 왈, 피켈그루버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서 듣기만 해도 구역질을 한다. 어찌나 싫어하는지 프로드노즈가 설명하는 와중에도 가난만 나오면 구역질을 한다.

[16] 전날 밤에 웅카가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

[17] 빨래 세탁부터 탈수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는 물건. 동력원은 티들스로, 첫만남 때 웅카가 입고 있던 우체부 냄새가 나는 벨라루스산 바지 조각으로 유인해서 레일 위를 달리게 만들어 동력원으로 사용했다.

[18] 웅카 왈, 예전부터 밤마다 몰래 찾아와서 초콜릿을 훔쳐갔다고 한다. 누들은 이를 믿지 않고 "네가 주황색 난쟁이 꿈 꾸면서 다 먹은 거 아니야?"라고 한다.

[19] 깨알같이 문맹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2 가지 이유를 들 때 A 라고 운을 띄우고 바로 C 로 넘어간다. 이에 반박하는 누들은 정상적으로 A 다음에 B 라고 말한다.

[20] 술 초콜릿의 일종으로, 먹으면 감수성이 북받쳐 올라서 즐거운 몽상에 빠지다가 잠에 든다. 이때 바질은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다는 그웨니에게 전화를 걸고 잠드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후반부에 이어진다.

[21] 웅카 왈, 기린들을 진정시켜주는 방법 중 하나란다. 아카시아 민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라고.

[22] 웅카의 어머니가, 웅카가 초콜릿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눌 때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며 했던 것이기도 하다. 즉 웅카에게 새끼손가락을 건다는 것은 상당히 진지한 약속인 것.

[23]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호평받는 대목. 이때 호수에 있던 플라밍고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동물원을 탈출하는데, 동물원에 침입한 직후 호수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플라밍고들을 보고 누들이 왜 재들은 날아가지 않는 거냐고 의문을 표하자 웅카가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기 때문이지."라고 문답을 주고받는다. 이것에 대한 답인 셈.

[24] 횡령 등이 적힌 것은 물론 슬러그워스를 포함한 나머지 둘이 암암리에 담합해 달콤 백화점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 초콜릿 원액을 성당 지하에 보관 중이라나.

[25] 처음부터 웅카의 작전에 협조하겠다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크런치만은 처음엔 어떻게 삼사장에게 맞서냐며 작전에 협조하지 않으려다 누들이 준 웅카의 초콜릿을 맛보자마자 곧바로 작전에 협조해주는 개그썸이 나온다. 크런치: 정말 고맙구나, 누들. 그의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든 관심 없어... 언제 시작할까?

[26] 이때 남은 자라나라 에클레어를 먹은 스프링스 고양이가 털이 자라 평범한 고양이처럼 변하는 개그썸이 나온다.

[27] 이를 먹은 남자는 원래는 너무 소심한 성격이라 고백에도 실패하고 택시도 그를 무시하는 등의 수모를 당하지만, 마카롱을 먹고 자신감 만땅인 모습이 되어 꽃집 여자에게 다시 고백하는 데 성공하고 결국 결혼하는 데 성공한다.

[28] 이 시퀀스에서 초콜릿을 먹은 애퍼블 경관이 그 동안 보여준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활짝 웃으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준법 정신과 직업 의식이 투철하지만 악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

[29]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지만 옷자락이 맨홀 뚜껑에 걸려 흔적을 남겨버리고 만 것.

[30] 이때 애플이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살인사건들을 먼저 조사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뇌물을 받을 대로 받은 경찰서장에겐 안중도 없었다. 사실상 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에 빌붙기를 우선으로 하는 전형적인 부패경찰이 되기 시작한 셈. 그리고 경찰서장은 카르텔에게 뇌물로 받은 초콜릿 때문에 전보다 더 뚱뚱해진 상태였다. 맨홀을 조사하기 위해 쭉그려 앉았던 서장이 다시 일어서지 못해 부축을 받아서 겨우 일어서는 장면이 압권. 좀 일으켜 주게. 지난 2 주 동안 150 파운드(대충 68kg 정도)는 찜 거 같아

[31] 71 년도 영화판에서 웅카가 움파룸파들을 소환하던 그 피리와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다.

[32] 해당 곡은 이 시퀀스에서 한 번, 엔딩 크레딧의 두 번째 삽입곡으로 한 번 더 등장한다.

[33] 원작 초콜릿 공장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닮았다.

[34] 물론 이는 웅카의 본거지가 스크러빗 부인의 세탁소임을 알아낸 초콜릿 카르텔과 스크러빗 부인+블리처의 뒷공작이었다.

[35] 꿈에 그리던 가게가 망가지고 동료들과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탓도 있지만, 이때 웅카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 건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다. 어릴 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고통에도 아랑곳않고 성공하길 기대하며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정작 돌아온 건 이제 두 번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웅카는 멍청한 약속 따윈 믿는 게 아니었다며 크게 자조한다.

[36] 떠나기 전 프로드노즈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마련했다며 조롱하는데, 실제로 배에는 좌석은커녕 판자 위에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수놓아진 타월이 놓여 있었다. 시대적 배경상 당시에는 비즈니스석조차 없었다는 게 함정.

[37] 이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웅카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안녕 나의 소중한 미니 초콜릿 공장

[38] 이때 상황을 설명해 달라던 움파룸파가 곧 터질 듯한 다이너마이트를 보자마자 "설명은 나중에 듣지. 좋은 하루 보내라고."라며 구멍조끼를 작동시키고 웅카와 함께 바다로 몸을 던지는 게 개그 포인트.

[39] 이때 블리처는 떠나는 래리를 붙잡고 "너 재능 있어. 포기하지 마."라고 진심으로 응원해준다. 이제까지 괴롭히던 놈이 그러니 "무섭게 왜 이래..."라며 당황하는 래리가 개그 포인트.

[40] 아비게일은 아카시아 민트를 좋아했는데, 누들이 먼저 고아로 변장하고 줄리어스를 만나 초콜릿을 자선해 달라고 부탁한다. 줄리어스는 거절하며 돌아서는데, 누들이 "그럼 이거나 먹어..."라며 줄리어스의 옷 주머니에 민트를 몰래 넣는다. 계획대로 아비게일은 성당으로 들어오자마자 민트 초콜릿이 들어 있던 신부의 주머니에 주둥이를 처박았고, 이에 줄리어스는 기겁하며 도망친다. 이 장면은 폴 킹의 전작인 패딩턴 2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패러디인데, 합창과 오르간 반주로 구성된 음악 및 성당에서 이뤄지는 하이스트 시퀀스라는 점이 유사하다. 다른 점은 수도원 측이 주인공 일행을 도와주고 악역 추적자에게 봉변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는 정반대로, 왕카에서는 신부와 수도사들 모두 초콜릿 카르텔과 담합해 주인공들을 방해하는 초콜릿 중독자 악역들로 나온다는 점이다. 합창 부분을 전부 수도사들이 기린을 피해 도망치면서 근성으로 부르는 게 소소한 개그 포인트. 여담으로,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기린은 생각보다 위험한 동물이며, 수도사들이 아비게일을 피해 도망다니는 장면은 어찌보면 고증이다.

[41] 이때 경비원의 정체가 바질이 전화를 걸었던 그웨니였던 걸로 드러난다! 이에 누들이 "이게 이렇게 된다고?"라며 놀라워 하는 반응을 보인다.

[42] 처음에는 아무리 뒤져도 장부가 나오지 않아 짜증이 난 누들이 책을 아무렇게나 집어던졌는데, 그 책이 숨겨진 서랍장의 문을 맞춰서 열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장부가 드러난다.

[43] 직접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진 않지만, 슬러그워스가 누들에게 "네 아버지는 대책 없는 낭만주의자였다. 그러다가 책벌레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도 전에 죽었지. 덕분에 내가 집안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었고 말이야." (A hopeless romantic he was. Fell in love with a common little bookworm, died before they could marry. Leaving me sole heir to the family fortune.)라고 말하는 걸 통해 대략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슬러그워스가 직접 동생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집안의 재산은 이제 모조리 자신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적법한 상속자인 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44] 누들의 아버지인 지베디(Zebedee)의 이니셜.

[45] 이때 삼사장은 "왕카는 이상한 놈이지만 초콜릿 하나는 잘 만든다니까!"라고 칭찬한다. 이들도 왕카의 초콜릿이 맛있다 여기면서도 괜히 경쟁 때문에 생트집을 잡은 것.

[46] 앞서 왕카에게 노래를 불러줄 때 '친구들에게 천 배 값기 전까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

[47] 이때까지만 해도 이 '초록 머리의 주황색 난쟁이'라는 게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던 누들은 마침내 실제로 그를 보고 "주황색 난쟁이! 고마워!!!"라며 크게 소리친다. 이에 움파룸파는 쿨하게 인사를 하고 떠난다.

[48] 서장은 자신이 받았던 초콜릿을 다 먹어치워서 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뚱뚱해져 있었다. 간신히 나오면서 차가 작아진 거라는 드립은 덤. 문을 열자 차 안에서 수많은 초콜릿 포장지가 쏟아질 정도였다.

[49] 경찰서장은 그 와중에도 카르텔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자신이 직접 맡겠다고 나서지만, 장부를 들여다 본 애플이 서장의 이름을 발견하는 바람에 체포된다.

[50] 윙카는 처음부터 삼사장이 움파룸파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먹어버릴 걸 예상하고 옛먹일 작정으로 특별한 두둥실 초코를 만들었는데, 효과가 더 나중에 나타나긴 하지만 더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51] 이 와중에도 "우리 초콜릿! 우린 망했다!"라고 외치며 자기 목숨보다 돈 생각부터 하는 게 백미.

[52]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적힌 종이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종지로, 윙카의 어머니가 포장한 초콜릿 포장지 안에 들어 있었다.

[53] 초콜릿에 함유된 지방이 엄청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카카오 함량이 높고 보관이 제대로 된 경우 만들어진 지 100년 된 것도 먹을 수 있다.

[54] 어머니 이름이 도로시 스미스라는 것은 알아냈지만 전화번호부에 D. 스미스라는 이름이 106명이나 된 탓에, 벨이 오후 내내 전화를 건 끝에 마침내 누들의 어머니를 찾아냈다고 한다.

[55] 1971년 영화판의 메인 OST.

[56] 오프닝의 달콤 백화점 매장과는 반대로 '몽상가 환영!'(Daydreamers Welcome!)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수미상관을 이룬다.

[57] 감독의 전작인 패딩턴 2에서 삭막했던 교도소의 분위기가 주인공의 활약으로 서서히 감화되며 변해가는 장면의 오마주.

[58] 두 사람의 변한 모습은 로알드 달의 또 다른 동화책인 멍청씨 부부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부부의 오마주. 물론 멍청씨 부부는 피부가 슈렉처럼 초록색은 아니지만

[59] 여인숙 또한 폐쇄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운 좋게 풀려나더라도 이미 자신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영원히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극중 스크러빗 부인과 불리처가 저지른 범법 행위만 하더라도 여인숙 손님들을 조작된 계약으로 끌어들여 강제 노동을 시켰으니 부당계약에 근로기준법 위반, 누들에게 장기간 저지른 아동학대, 윙카가 판매할 예정이었던 초콜릿에 발모제를 탄 사실상 생화학 테러 수준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최소 몇 년의 징역형은 나오고도 남을 법한 중범죄들이다.

[60] 이 영화의 이후 시점을 다룬 원작에서도 삼인방은 여전히 웅카를 시샘하며 비법을 훔쳐내려고 산업 스파이들을 보내거나 제발 제품 개발실 좀 보여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소인배들로 묘사된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초콜릿 원액은 다 날려먹고 제과업계 시장을 독점하던 카르텔은 박살난 데다가 줄리어스 신부나 경찰서장 같은 뒷배들도 사라졌으며, 두둥실 초코 먹고 웅카의 제품에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2 번이나 망신까지 당한 데다가, 이후에는 웅카에게 한참 못 미치는 3류 제과사들로 전략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분통 터질 일. 게다가 다 자기들 잘못으로 인한 인과응보이니 어디 호소할 수도 없다. 특히 슬러그워스는 누들을 세탁소에 유기하기까지 했으니 죄가 더 크다.